



탁월한 지도력

서은철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이었던 리완유(李光耀)의 자서전 <내가 걸어 온 인류 국가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싱가포르가 어떻게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이총리가 처음 총리로 취임했던 1959년의 당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은 4개 언어권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사분오열되어 있었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패는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불법파업과 폭동이 줄을 이었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400달러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라고는 하지만 서울보다 적은 땅 덩어리에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열대우림 정글이었으며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 덕분에 고온다습한 날씨를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나라, 국민 소득 3만 불의 선진국이면서 공무원 청결도 세계12위 국가에 아시아 최강의 경쟁력을 지닌 명품 도시국가로 만든 사람이 바로 리완유 총리였습니다. 싱가포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으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는 항상 그 중심에 변화된 한 사람의 지도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B.C 445년부터 425년까지 20년 동안 유대총독으로 있으면서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으로 이끌며 변화를 이끌어 내었던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많은 지식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여자와 어린이, 노인들만 남아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수산궁에서 왕의 술 관원 직을 맡고 있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산궁의 안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땅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관원 자리를 박차고 황제의 재가를 얻어 귀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치 않았던 주변 국가들이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느헤미야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 역사를 감당해 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십시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1. 소명의식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는 소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보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들과 업적들을 많이 이루어 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맞아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항상 포기를 빨리하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명의식이 확실히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1) 필요에 대해 양심적인 반응을 보일 때

느헤미야는 친척 중 한명이었던 하나니로 부터 예루살렘성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부터 그의 양심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일간을 울고 슬피하며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소명은 상황에 대한 양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면 이것이 소명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필요에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것인가?(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그 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면 그것은 소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소명 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일 것입니다.

2) 환경이 풀리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환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가운데 빠진 동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명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소명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환경은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지만 그 기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환경이 변화되고 일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 커비는 “참된 소명은 여러 채널의 교집합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소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채널로 1.성경 2.기도 3.공동체 4.환경을 들었는데, 이렇게 소명을 확인하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소명의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소명에 대한 확

신이 분명하였기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18세기의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 그의 평생을 통해 노예무역법을 폐지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명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에 대해 좀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2. 방향감각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방향감각입니다. 아무리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성과를 낸다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 없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나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바른 분별력에서 바른 방향감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장사치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위대한 기업을 일굴 수도 없습니다.

머크(Merck)라는 제약회사의 비전은 “우리는 병을 이기고 인류를 돕는데 최우선을 둔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일본에 결핵이 대유행하게 되었을 때 머크의 경영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핵치료제로 스테로트마이신(streptomycin)을 이미 개발해놓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 약을 독점적으로 팔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경영진들은 일본에서 이 약을 비싸게 팔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자기 회사의 비전을 따라 이 약을 일본에 그냥 풀었습니다. 오히려 수송비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서 일본국민들이 쉽게 이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머크가 300년이 넘도록 건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분명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머크의 해외 지사 중 가장 큰 지사는 도쿄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70년대 일본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알거지였을 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머크에 보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른 방향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른 방향성과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5:14~19) 과도같이 밀려오는 끊임없는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의 어원은 *εν θεοσ* (in God)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방향성이 결정되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방해세력들의 끈질긴 방해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성을 완성할 때까지 그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게 만들었습니다.(4:23)

3. 겸손한 태도

1) 기도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보면 희안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곳곳에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일을 끝내기 전에도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보통, 기도는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느헤미야는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정치적 인맥이 있었고 왕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과 조건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2:5~8) 그런데도 그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를 보험이나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인생은 스스로 예측할 수 없고 불완전하여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잠언 16:9)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권력자였지만 그는 불확실한 인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인생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겠으며 마음먹은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일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은 참된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협력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고 이스라엘의 참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먼저 왕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2:5~8)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은 혼자 일을 잘하는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있어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요청하는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참된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입니다. 리더들이 자주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강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탁월한 능력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 지도력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반면 탁월한 지도력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동시에 겸손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창 2:18~15) 돌과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 페르시아의 군대나 일꾼들을 동원하지 않고 실의에 빠진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성 쌓는 작업을 설득하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성을 쌓는 것을 자신들의 일인 것으로 여겨서 각자의 영역에서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3:1-32) 이것이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4. 철저한 준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협력의 정신을 추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자기 맘을 흘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고 마음이 급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2:5~8) 어느 날 왕에게 나아오는데 왕 앞에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왕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쌓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지만 이렇게 된 것이 마음씨 좋은 왕을 만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조직의 리더들도 만만치 않은데 대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만만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모든 조사를 다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준비된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허락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줄려면 칼을 잘 갈아 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지형부터 순찰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순찰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불러놓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에 사람들이 설득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시작되면서도 철저히 앞장서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위협적인 방해세력들을 대비해서도 대비는 철저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 버렸습니다. 일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5. 용기

모든 지도력에는 반드시 도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정당치 못한 지도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한 지도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여러분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아마 모든 사람을 열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쳤습니까? 성경에도 모세와 같이 유순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박 대들었지 않습니까? 따르는 이들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이들의 잘못이든 지도자는 그러한 반대에 지혜롭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용기가 없다면 다른 어떤 자질도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1) 신앙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당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실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사고파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4:14, 20, 6:14)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장 많이 쓰신 용어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인데 총366회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고 모세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는 너무 세상을 보느라 여러분안의 하나님을 못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분명한 목표

느헤미야는 용기를 잃지 않고 대적들과 지혜롭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싸우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피하였습니다. 악성루머에다가 온갖 위협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위협과 루머들이 돌때마다 직접 그들을 상대하기보다 일에 더 진력을 내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성벽쌓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취했던 행동은 한손에는 칼을, 한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4:16-23) 느헤미야에게는 최종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전쟁 당시 미국 해군 제독이었던 메이혼(Mahon) 장군은 부하 장교들을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제군들, 귀관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설 때에는 언제나 최종목표를 먼저 결정해 놓고 시작하시오. 일단 결정했으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6. 모범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가 재직 당시 건설청 장관은 총리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건설청 장관은 외국의 투자를 이끌어 오는데 탁월했는데 그 덕분에 싱가포르에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에서 작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약 100만불 정도의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장관은 총리에게 친구로서 치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그 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회고하며 리관유 총리는 말하기를 “30년이 지난 지금 단 백만불 때문에 그보다 백배 천배의 이익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나는 떠나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에 국민이 나를 믿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에는 반드시 삶의 모범이 따라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유대총독을 하면서 황제로부터 오는 녹봉을 받지 않았고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5:14-15)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땅값이 많이 올랐겠지만

그는 땅을 사지도 않았습시다.(5:16)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5:15)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보고 관행이었던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습시다.(5:18) 그가 한말은 이것이었습시다.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 중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드문 것은 지도자들의 삶에 실천과 모범이 없기 때문입시다.

7. 팀 의식

느헤미야서를 읽다보면 유달리 가문과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성은 어느 가문의 누가 쌓았으며 ...”이런 식입시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곳에는 약간의 촌평도 따랐는데 “어느 집안의 누구는 집에 딸밖에 없는데...”, “어느 마을은 하류층 사람들만 나오고 상류층 빠지고...” 이런 식입시다. 느헤미야는 성을 쌓았던 사람들을 기억했습시다.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데 열심히 일한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했습시다. 여기에서 탁월한 지도력이 나오습시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지도자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합시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잔소리하고 공격할 뿐입시다. 그 지도자 밑에서는 결코 다음 지도력이 나올 수 없습시다.

8. 더 큰 비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습시다. 김주하 아나운서가 얼마 전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참 잘 나갈 때 신앙생활은 날라리처럼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습시다. 누구나 자기인생만을 바라보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시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에 따라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시다. .

느헤미야는 막강한 제국의 권력자였으면서도 권력보다 더 큰 비전이 있었습시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시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예배를 인도할 영적 인도자를 구하는 것이었습시다. 그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성회를 인도케 했습시다.(8장) 예루살렘과 자기의 동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시다.

찰리 브라운이라는 만화를 아습지요? 찰리 브라운이 화살을 따 쏘고 나서 화살이 박혀있는 곳에 과녁을 그립시다. 다 백발백중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분명한 목적보다는 일단 살고 본 다음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러나 개인이나 회사든지 원대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그 목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시다. 탁월한 개인이나 조직, 회사들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시다. 60년대 초 케네디는 미 국민들에게 “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올려놓겠다.”고 했습시다. 남들이 다 불가능이라 했을 때 그는 그 비전을 품고 마침내 이루었습시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심플했지만 분명했습시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전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본 탁월한 지도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힘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